

김현미 장관, “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주거정책 추진 ” 약속 **24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찾아 현장에서 체감토록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** **다자녀 가구용 주거면적 맞춰 공급유형 다양화·금융지원 방안도 챙길 터**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4일(목)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아동가구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과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.
- 김 장관이 방문한 가정은 원룸주택에서 네 자녀를 양육 중으로, “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지만, 직장파와 자녀 학교에 가까운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렵고, 현재의 지원 수준으로는 가구원수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”이라고 말했다.
- 김 장관은 “그간 어린이의 주거권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”면서, “어린이도 성별에 따른 독립된 공간을 보장받고 갑작스러운 전학으로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을 권리가 있는 만큼, 어린이 눈높이에서 주거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- 아울러, “아동성장 환경에 맞는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을 다양화하고, 보증금과 금융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세심히 챙겨보겠다”고 밝혔다.
- 이후 김 장관은 시흥시 관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(사장 변창흠)가 추진 중인 다자녀가구 전용 리모델링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담당 직원을 격려했다.
- 시범사업 현장을 둘러본 김 장관은 “다자녀 가정에게 이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주거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면서

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, 필요한 지역 곳곳에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게 최선을 다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- 김 장관은 “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맞춤형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가고 있지만, 여전히 많은 이웃이 최저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”며,
- “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위해 지원이 시급한 곳부터 속도감 있게 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했다.

2019. 10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